조승래 "이진숙·김태규, 윤어게인 행동대장…국회 아수라장 만들 것"

등록 2026.05.30 16:28:53 | 수정 2026.05.30 16:32:2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대구 달성군의 이진숙,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를 거론하며 "국민의 현명한 선택만이 윤어게인을 막아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조 본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위헌과 위법, 내란 혐의로 심판받은 실패한 정권의 핵심 하수인들이 선거를 틈타 아무런 성찰과 반성도 없이 부활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진숙 후보와 김태규 후보의 출마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려는 이른바 윤어게인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을, 김 후보는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조 본부장은 "두 사람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과거 이력과 현재의 선거 행태를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또한 너무나 명백하다"며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공직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보여준 것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독단과 독선, 그리고 야당과 언론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 뿐"이라고 했다.

조 본부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정책과 미래 비전 대신 오직 극단적인 진영 대결과 이념 공세로 국민을 편 가르기에 바쁜 행태"라며 "국가 발전이나 지역 민생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며 오직 싸움밖에 할 줄 모르는 철저한 정쟁 기술자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 본부장은 "지금 국회도 국민의힘의 정쟁용 필리버스터와 국정 발목잡기로 민생을 원활하게 챙기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이진숙, 김태규까지 가세한다면 국회의 생산성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은 뒤로 한 채 윤어게인의 행동대장이 되어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싸움박질만 일삼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정쟁 유발자들에게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내어줄 수는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